

[감곡 매괴 성모 순례지 성당]

충청북도 음성군 감곡면 성당길 10 (043)881-2809

감곡 본당은 1896년 9월 17일 ‘장호원 본당’(長湖院本堂)이란 명칭으로 설립되었으며, 주보는 매괴(목주기도)의 성모이다.

장호원 지역은 본래 부영골 본당 관할 지역에 들어 있었다. 부영골은 현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부평리(康川面 釜坪里)에 있던 산간 마을로, 1885년 예수 성심 신학교가 설립되면서 교우촌으로 조성되었고, 1887년 신학교가 서울 용산으로 이전한 뒤에도 얼마 동안 본당으로 남아 있었다. 그 후 장호원 지역이 기록에 나타나는 것은 1894년 봄 부영골 본당 신부로 부임한 부이용(Camillus Bouillon, 任加彌) 신부 때였다. 그는 이곳에 부임한 뒤 본당 위치가 적당치 않음을 깨닫고 장차 이를 이전할 장소를 물색하던 중 1896년 5월 장호원의 매산(玫山) 언덕에 자리 잡고 있던 한옥을 매입하게 되었다. 이 집은 본래 임오군란 때 민비(閔妃)가 일시 피신하기도 했던 민응식(閔應植)의 한옥으로 1895년 말 의병과 일본군의 전쟁 속에서 불타 버린 상태였다.

뮈텔(Mutel, 閔德孝) 주교의 허락을 얻어 이를 매입하게 된 부이용 신부는 부영골에 거처하면서 불탄 집을 수리하였으나 일이 여의치 않자 예정을 앞당겨 1896년 9월 17일 장호원으로의 본당 이전을 결행하였다. 이로써 부영골 본당은 폐지되었다. 당시 장호원에는 신자수가 5-6명에 불과하였지만, 본당의 관할 지역은 매우 넓어 경기도 여주·이천, 충청도 단양·제천·충주·음성·괴산·진천·청주·보은 등이 여기에 속하였으며, 공소수 27개에 총 신자수는 1,300여 명에 이르고 있었다. 장호원에 정착한 뒤 부이용 신부는 우선 사제관과 그에 딸린 소성당 공사를 계속하여 그해 12월 5일 이를 완공하였다.

그러나 장호원 자체의 신자수가 증가하였고, 또 20여 개에 이르는 공소의 신자들도 증가하는 상태였으므로 성당 건립이 시급하였다. 이에 그는 1903년 성당 신축을 시작하여 다음해 9월에 이를 완공하고, 그해 10월 2일 뮈텔 주교의 집전으로 축성식을 갖게 되었다. 신축 성당의 규모는 한옥과 양옥의 절충식으로 총 80평에 달했다.

성장과 변모 본당이 점차 정착되면서 부이용 신부는 우선 교육 사업에 눈을 돌렸다. 이에 그는 1907년 남학교인 매괴학당을 설립하고 이어 1912년에는 여학교를 설립했는데, 그중 여학교는 그해 본당에 부임한 샬트르 성 바오로 수녀회 수녀들이 교육을 담당했다. 이들 학교는 이듬해 6년제 보통학교로 과정이 변경되었다.

한편 부이용 신부는 조림 사업에 출선수범하였으며, 1914년부터 매산(장미의 언덕)에서 성체 거동을 시작하였고, 1922년에 학교 건물을 1차 개축하였다가 1936년 정식 인가를 받고 3층 교사로 증축하였다. 그러한 가운데서도 본당에서는 1930년 10월 7일에는 종각 높이가 130척이 넘는 현재의 고딕 연와조 성당을 신축하고, 1933년 본당 성가집을 편찬 간행하였다. 이렇듯 부이용 신부와 신자들의 열성으로 본당의 교세도 크게 증가하여 1937년에는 총 신자수가 2,150명이 되었다.

일제 말기가 되면서 다른 본당들과 마찬가지로 장호원 본당도 어려움을 겪어야만 하였다. 일본인들의 감시와 간섭이 계속되었고, 1942년에는 보좌 조인환(曹仁煥, 베드로) 신부가 사소한 일로 투옥되기까지 하였다. 한편 일제 당국에서는 매산 언덕에 자기네들의 신사(神社)를 건립하려고 획책한 일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이해 부이용 신부가 일본인들의 적국인 프랑스 선교

사라는 이유 때문에 용산 신학교에 연금되어야 했다. 그 결과 장금구(莊金龜, 크리소스토모) 신부가 제2대 본당 주임으로 부임하게 되었고, 이어 다음해에는 유영근(劉榮根, 요한) 신부가 부임하여 해방을 맞이하였다.

이때 신자들은 한일합병 당시 부이용 신부가 제대 밑에 숨겨 두었던 태극기를 계양하고, 부이용 신부를 맞이하여 광복의 기쁨을 맛보았다. 부이용 신부는 이해 11월 제4대 주임으로 다시 부임하여 활동하다가 1947년 10월 선종하였고, 그 뒤를 이어 보좌로 활동하던 박고안(朴稿安, 프란치스코) 신부가 주임으로 임명되어 6.25 동란을 겪었으며, 그 후 1953년 3월에 매괴학교를 매괴상업학교로 변경하였다. 이 학교는 1966년에 여자 중학교를 병설한 뒤 학칙을 변경하여 매괴여자중 · 상업학교로 인가를 받았으나, 국민학교는 1972년에 폐교되었다.

한편 감곡 본당은 충청북도(청주교구)의 모본당으로서 그동안 많은 자본당을 낳게 되었다. 1920년 고마리 본당(증평 본당의 전신), 1932년 청주 본당(수동 본당의 전신), 1945년 충주 본당, 1957년 무극 본당(현 금왕 본당), 1995년 양성 본당, 2001년 생극 본당 등이 분할 설립되었으며, 다시 이로부터 여러 자본당들이 분리되었다. 뿐만 아니라 교회 묘지의 매입, 자선 활동, 신심 활동 등을 통하여 지역 사회 안에서 활동하는 공동체로 성장시켜 왔으며, 1986년 본당 설립 90주년을 맞이하여 성모 동산을 정비하고 부이용 신부의 입상을 제작, 축성하는 동시에 “감곡 본당 90년사”를 편찬 간행하였다.

1930년 전국에서 18번째, 충청북도에서는 최초로 건립된 감곡 성당은 1996년 1월 5일 충청북도 유형문화재 제188호로 지정되었다. 성당 건물은 프랑스 신부인 시잘레(Chizallet, 池士元)가 설계하고 중국인들이 공사를 담당했다. 길이 40m, 넓이 15m, 종탑 높이 36.5m의 고딕식 건축물로 명동 성당의 축소판 같은 인상을 준다. 내부 천장은 원형 돔이고 중앙제대와 옆면에 4개의 소제대가 있으며, 라틴 십자형의 평면 구성은 국내 다른 옛 성당들과 크게 다르지 않다. 화강암으로 된 2층 건물인 사제관은 성당이 건립된 4년 후인 1934년에 지은 것이다.

제대 정면에는 한국전쟁 때 인민군에게 7발의 총탄을 맞았다는 본당 주보(主保)인 ‘매괴 성모상’이 설치되어 있다. 프랑스의 루르드 성지에서 제작되어 1930년 성당 봉헌 당시 제대 중앙에 안치된 성모상은 70년이 지난 지금에도 여전히 건재했다. 지금에 와서는 그 총탄 흔적을 통해 성모칠고(聖母七苦)를 기억하며, 주보로서 본당을 수호해주고 전쟁을 겪은 우리 겨레의 아픔에 동참하고자 한 성모의 마음을 깨닫고 있다.

감곡 성당은 2000년에 “감곡(매괴의 성모) 본당 100년사 · 화보집”을 발간하였다. 본당사는 복음의 전래와 교구의 변모, 장호원(감곡) 본당의 설립과 성장, 감곡 본당과 메리놀 외방전교회, 한국인 성직자의 사목과 본당 설립 100주년 행사, 자료집과 뮌헨 주교일기에 나타난 감곡 본당, 공소현황 등으로 정리되어 있다. 또 화보집은 초창기부터 각 시기별로 본당 역대 주임 사제와 수도자, 본당 출신 성직자와 수도자, 본당전교 · 단체활동, 성체현양대회, 교육 · 신심 활동, 공소행사를 모두 담았다.

2002년 10월 10일에는 유물관(매괴 박물관)을 개관했다. 이 유물관은 1934년 건축된 연면적 353평에 지하 1층, 지상 2층 규모의 석조 건물로 그동안 사제관으로 사용하던 것을 개조한 것이며, 성당이 최초 설립된 1896년 이후 전해 내려오는 유물들을 전시하고 있다. 특히 1914년 첫 성체현양대회 당시 사용했던 성모성심기와 예수성심기, 일산(日傘), 제의를 비롯해 본당 신자들이 사용하던 교리서 “요리강령”(1910년본) 등이 전시되어 있다.

감곡 성당은 2005년 2월말 사제관, 수녀원과 함께 ‘가밀로 영성의 집’을 신축하고 피정 및 순례 프로그램을 본격적으로 운영하기 시작했다. 초대 주임인 임 가밀로 부이용 신부의 이름을 딴 ‘가밀로 영성의 집’ 완공으로 순례객 100여명의 숙박이 가능하게 됐다.

청주교구는 2006년 10월 7일 감곡 성당을 ‘매괴 성모 순례지’로 공식 선포했다. 장봉훈 주교는 본당 후보인 ‘목주 기도의 복되신 동정 마리아’ 축일을 맞아 교서를 발표하고 감곡 성당을 매괴 성모 순례지로 승인했다. 성모 순례지 지정은 1991년 10월 7일 성모께 봉헌된 수원교구 남양 성모성지에 이어 한국 교회에서 두 번째이다.

장봉훈 주교는 성모를 통해 드러난 하느님 은총의 표징들로 성당 옆 매괴 성모광장이 일제강점기 중 신사참배 터로 지정되어 공사를 계획했으나 천둥과 소나기, 벼락으로 일제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갔고, 1950년 한국전쟁 중에 공산당원들이 성당 제대 중앙에 모셔진 매괴 성모상에 총을 쏘았으나 7군데 탄흔이 남는 가운데서도 파괴되지 않아 지금까지 성모칠고를 목상하도록 하고 있다는 점을 들었다.

매괴 성모 순례지 선포 이후 감곡 성당은 전 공동체가 성역화에 힘써 가밀로 영성의 집 앞에 임 가밀로 신부 동상을 세우고, 2008년 9월 14일 성 십자가 현양 축일에 매산 정상의 매괴 산상에 15m 높이의 대형 십자가와 제대, 성모상과 사도 요한상, 임 가밀로 신부 성체강복상을 새로 마련하여 축복식을 갖고 세계적인 성모 순례지로 도약할 준비를 갖추었다. 이로써 1896년 부임하여 50년간 성체 신심과 성모 신심을 두 축으로 해서 공동체를 이끈 임 가밀로 신부의 기도가 그 열매를 맺고 있다. 그리고 2009년 4월 20일 ‘로마 성모 대성전(Saint Mary Major Basilica)과 특별한 영적 유대로 결합된 성당 및 순례지’로 지정되었다.

2014년은 1914년 가밀로 신부 주도로 서울과 대구대목구 사제 25명 중 12명이 감곡에 모여 국내 첫 성체현양대회를 거행한 지 100주년이 되는 해였다. 이를 기념해 10월 9일 감곡 성당과 매괴 성모동산 일원에서 감곡 성체현양대회 100주년 감사미사를 봉헌하였다. 그리고 이 미사 중에 프랑스 루르드 성지의 마사비엘 동굴을 그대로 재현할 성모동굴 부지 축복식을 가졌다. [출처 : 차기진, 한국가톨릭대사전 제1권과 관련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편집(최종수정 2015년 12월 4일)]

[부영골(범골)]

경기도 여주군 강천면 부평리 581 (031)885-2031

여주 또는 문막 나들목에서 나와 42번 국도를 타고 여주와 문막 중간 쯤에 위치한 부평 교차로에서 남으로 3km 가량 세종 천문대 방향으로 내려가서 천문대를 오른편으로 끼고 1km 정도 간 뒤 다시 우회전해서 계곡 안쪽으로 1km 정도 거슬러 올라가면 부영골 예수 성심 신학교 사적지 터가 자리 잡고 있다.

이 예수 성심 신학교는 1885년 10월 28일 개교하여 온갖 수난과 역경을 이겨내면서 성소를 키워 내 오늘날의 가톨릭대학교 신학대학을 있게 한 모태이다. 최초의 방인사제 김대건 안드레아(金大建, 1821-1846년), 최양업 토마스(崔良業, 1821-1861년) 신부의 뒤를 이어 한국 교회의 목자들을 키워 낸 성소의 못자리는 바로 이곳에 그 첫 씨앗이 뿌려졌던 것이다.

현재 경기도 여주군에 위치한 이 신학교 터는 지금까지 ‘부흥골’로 불리어 왔지만 ‘범골’ 또는 ‘부영골’이라는 주장이 더욱 설득력을 지닌 듯하다. ‘부흥골’로 불린 것은 선교사들이 ‘Pouheungkol’로 표기했기 때문인데, 여기서 h는 무성(無聲)의 h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들이 점차 지배적이 되고 있다. 이는 실제로 ‘용산 신학교 학생 명부’(Liste des élèves du Séminaire de Ryong San)에 ‘Pouheungkol’이 아니라 ‘Pou Eng Kol’로 표기되어 있는 점

에서도 미루어 알 수 있다.

예수 성심 신학교 초창기 역사를 연구하는 데 있어서 필수적인 이 자료는 용산 예수 성심 신학교의 기원을 1885년 10월 28일에 개교한 부영골 예수 성심 신학교로 보고 있으며, 또한 1902년까지 초기의 학생 84명에 대한 약력을 소개하고 있다.

현재의 위치가 부흥(復興)과는 거리가 먼 깊은 산골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반 자료를 참고할 때 부흥골이라는 명칭은 합당하지 않은 듯 보이고 호랑이굴이 있다고 해서 ‘범골’, 부엉이들이 많았다는 데서 유래한 ‘부영골’이라는 두 가지 중에 한 가지가 옳을 것으로 보인다. 아직 어느 이름이 맞는가에 대해 결정적인 사료나 증언은 나오지 않고 있지만 분명한 것은 이곳이 한국 순교성인들의 정신을 이어받아 성소의 못자리를 태동케 한 거룩한 땅이라는 점이다.

조선교구 제7대 교구장 블랑(Blanc, 白圭三) 주교는 당시 국내 사정이 여전히 불안하고 인원도 부족해서 신학교의 설립을 망설이고 있었다. 하지만 페낭 신학교의 한국 학생들이 그곳의 기후와 풍토를 이겨 내지 못함으로써 그들의 철수가 시급해졌고, 이미 1884년에 일부가 귀국하게 됨에 따라 신학교의 설립을 서두르지 않을 수 없었다.

페낭 신학교에 보관된 자료에 의하면 1884년에 전 안드레아, 이 아우구스티노, 한 바오로가 귀국했고 이듬해에 최 루카가 귀국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이렇게 해서 서둘러 개교한 부영골의 예수 성심 신학교는 임시로 초가 몇 칸을 매입해 신학교를 설치, 요셉 마라발(Joseph Maraval, 徐若瑟) 신부가 홀로 교수직을 맡고, 여기에 페낭에서 돌아온 학생 4명과 조선에서 입학한 3명을 포함해 모두 7명의 신학생이 있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그러나 부영골 신학교는 그리 오래 운영되지는 못했다. 시설이 좋지 않은데다 학생 수도 얼마 되지 않았고 그 동안 콜레라로 인해 한문 교사 1명과 학생 1명이 사망했다. 그러는 동안 1886년에 한불조약(韓佛條約)이 체결·비준되면서 블랑 주교는 신학교를 다른 곳으로 옮길 계획을 세웠다. 그래서 개교 2년이 지난 1887년 봄, 부영골 예수 성심 신학교는 용산 함벽정(函碧亭, 현 용산구 원효로 4가)의 커다란 조선 가옥에 꾸며진 새 보금자리로 옮겼다.

오늘날 부영골 신학교가 있었던 사적지 터는 그 흔적을 찾아보기조차 어려울 정도로 남아 있는 것이 거의 없다. 세종 천문대를 지나 섬강 변을 따라 1km 정도 올라가서 오른쪽 계곡 안으로 800m 정도 올라가면 외딴집 한 채가 있는데, 그곳에서 약 200m 정도 가면 신학교 집터로 추정되는 흔적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그 흔적조차도 쉽게 찾을 수 없을 정도로 수풀과 초목만 무성할 뿐이다. [출처 : 주평국, 하늘에서 땅 끝까지 - 향내나는 그분들의 발자국을 따라서, 가톨릭출판사, 1996, 내용 일부 수정 및 추가(최종수정 2011년 11월 4일)]

< 배론(舟論) 성요셉신학교 >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이자 근대학교는 1855년에 창설된 배론(舟論) 성요셉신학교다.

충북 제천군 봉양면 구학리에서 3칸짜리 초가집으로 시작된 배론 신학교는 10여년간 꾸준한 발전을 거듭해오다 서울포도청에서 파견된 포졸들에게 푸르티에 신부와 프티니콜라 신부가 체포됨으로써 1866년 3월2일 폐쇄됐다.

배론 신학교는 제천 배론 교우촌에 장주기(요셉)가 제공한 3칸짜리 초가 살림집에서 1853년 조선 천주교회의 장상역할을 해온 파리의방전교회 메스트르 신부에 의해 시작됐다. 이곳에서는 1856년부터 한문·교리·일반상식 등과 함께 라틴어를 가르쳤으며, 프티니콜라 신부가 교사로 임명된 1862년부터는 신학과를 개설해 수사학·철학·윤리·신학 등을 가르친 바 있다.

배론 신학교는 주거환경이 열악해 교사신부와 학생 모두의 건강이 악화돼 1863년부터 제5대 조선교구장 다블뤼 주교와 함께 다른 곳으로 옮겨보려고 하였지만 적당한 장소를 구할 수 없

어 끝내 꿈을 이루지 못했다.

이들은 병인박해(1866년)로 신학교가 폐쇄될 때까지 신학생들을 지도했다. 배론 성요셉신학교가 우리나라 최초의 신학교임은 1935년 조선일보에 보도된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된다.

병인박해를 거치면서 신부 및 신자 선생들이 순교함에 따라 신학생들은 자연 해산되었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일부는 순교하였지만 일부는 이후에도 생존했다. 유 안드레아 · 권동 요한 · 박 비리버 3인이 그 가운데 속하는데, 이들이 각각 '배론학당' 혹은 '배론신학교'에서 신품(神品)공부를 하였다고 했으므로 당시 신학생으로 확인되는 인물들 중의 일부이다.

기록에 따르면 유 안드레아와 권동 요한은 병인박해 당시 순교했지만 박 비리버는 이후에도 생존했음이 분명하다. 특히 박 비리버는 병인박해 이후에도 자신이 천주교 신자임을 드러냈는데 이는 그를 직접 만나 라틴어로 의사소통을 했던 독일상인 오페르트가 남긴 기록에서 찾을 수 있다.

첫째, 유 안드레아는 무려 6년 동안 신품공부를 하였다고 했으므로, 그는 언어와 일반교양 영역은 물론 철학을 거쳐 신학을 본격적으로 공부했다고 봐야 옳을 것이다. 일례로 당시 폐남 신학교에 유학 중인 신학생들이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는데 나이 어린 신학생들은 한문, 그리고 다른 학생들은 라틴어를 공부했음을 들 수 있다.

따라서 배론 성요셉신학교에서 6년간이나 공부했다는 유 안드레아의 경우도 이와 비슷하게 한문 · 라틴어 등 언어영역은 이미 마치고 나서, 일반교양 영역과 철학 단계를 거쳐 신학을 공부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둘째, 권동 요한의 경우 주목할 것은 4품(品)까지 받았고, 고향 수원에 돌아가서 '훈학(訓學)'을 했다는 점이다. 4품이라고 하면 7품인 사제품(司祭品) · 6품인 부제품(副祭品) · 5품인 차부제품(次副祭品)의 바로 밑 단계인 시종품(侍從品)을 말한다. 그가 했다는 '훈학'에는 천주교 교리에 대한 훈도(訓導)가 우선 포함되었을 것이고, 성요셉신학교에서 배운 한문 등의 어학 영역 외에도 역사·지리 등 서양인 신부에게 배운 근대적 지식이 내포되었을 것이다.

셋째, 박 비리버는 라틴어를 써서 독일인과 의사소통을 했다는 점인데 여기서 주목할 점은 간단한 인사 정도를 건넨 것이 아니라 정확히 문장을 써서 의사표현을 했다는 사실이다. 따라서 라틴어를 단어 나열이 아닌 문장으로 완성하여 의미를 전달하는 수사학(修辭學)을 배워 실용적으로 구사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는 두말할 나위 없이 배론 신학교에서 익힌 것이다.

따라서 배론 성요셉신학교에서 행해진 교육의 내용은 크게 분류하면 언어 · 교양 · 종교 영역이었다고 추론된다. 서양 근대 학문을 체득한 서양인 신부가 이를 직접 가르쳤기 때문에 배론 성요셉신학교는 근대 학교로서의 면모를 충분히 갖추었다고 판단된다.

이후 종교의 자유 분위기가 조성되자 소신학교 개교를 준비하여 1885년 10월 28일에 부흥골 예수성심신학교를 개교하기에 이른다. 이 사실은 당시 우리나라에 와서 활동 중이던 프랑스 외교관 지 코르크르당(G. Cogordan)이 본국 정부에 보고한 문서에도 나타난다.

그는 보고서에 "마라발 신부는 1885년에 건립되어 수도에서 30리 정도 떨어진 곳에 위치한 신학교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데, 현재 7명의 신학생이 있습니다. 그 외에 17명의 조선인 청년들이 폐남에 있는 외방전교회 소신학교에서 교육을 받고 있습니다"라고 기록했다.

그러다가 1887년 3월에는 용산 함벽정(函碧亭)으로 옮겼는데, 이것이 용산 예수성심신학교다. 이때에는 대신학교와 소신학교를 겸했다. 이후 폐남신학교에서 수학 중이던 신학생들을 모두 귀국시켜 함께 교육시켰다.

용산 예수성심신학교 사제양성 교육의 초기는 1887년부터 1900년까지로, 그때는 폐남신학교

출신자의 사제서품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폐낭에서 신학교를 다니던 학생들이 돌아와 공부를 마치고 사제품을 받은 것은 1896년이다. 이때 국내에서 비로소 3명의 새 사제가 처음 배출됐다. 이들은 폐낭신학교에서 공부하고 돌아왔기 때문에 교육 기간이 단축됐다.

중기로 구분한 1900년부터 1928년까지는 신학생 수의 증가와 권위주의적 교육의 시기다. 이때의 특징은 첫째, 신학생 수가 증가하고는 있었지만 기복이 심했다는 점이다. 둘째, 건물 규모는 신학생 증가에 따라 성당과 교사가 자연히 증축되었지만 교육의 질은 오히려 퇴보하는 경향을 보였다. 셋째, 파리외방전교회 소속 신부들의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인 학교 운영이다.

후기로 구분되는 1928년부터 폐교를 당한 1942년까지는 대·소신학교의 분리와 교육의 내실화 시기로 정리된다. 1928년에 대신학교와 소신학교가 분리되어 대신학교는 용산에 그대로 남고, 소신학교는 남대문상업학교(후일 동성상업학교, 현 동성고등학교)에서 중등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되었다.

1933년에 이르러 처음으로 14명의 학생이 소신학교를 졸업하고, 용산신학교에 입학했다. 그에 따라 대신학교에도 새로운 학업 분위기가 조성되기에 이르렀다. 그만큼 교육 내용도 내실을 기하게 되었던 것이다.

하지만 대신학교는 여전히 법적으로 미인가 상태였는데, 이는 교회가 신학교의 자유로운 교육을 지향하기 위해서였다. 이 점은 "경향잡지"(1946년 12월호 65쪽)에 게재된 기록에서 확인된다.

"일본 제정은 서울 구룡산에 예수성심신학교가 인가도 받지 않고 신자 청소년들을 모아 교육하고 있음을 모르지 않았으나 아무런 문제도 일으키지 않았기 때문에 짐짓 모르는 체하여 묵인하여 왔다. 신학교 당국에서도 정식으로 학교인가를 받고 보면 여러 가지 까다로운 제한을 받게 되어 신학교로서의 자유로운 교육을 시키기 어렵다 하여 짐짓 인가를 신청하지도 않고 그대로 내려왔다.

혜화동 신학교 역시 창립 당초부터 동성상업학교 을조(乙組)로 하여 동교 기숙사를 겸한 것처럼 외면으로 행세하면서 내면으로 신학교 교육을 베풀고 있었으니 이 역시 그때 시국형편에는 여러 가지로 순편하고 유리한 방책이었다. 이 역시 학무국에서 모르지는 안았으나 짐짓 눈감아 두었던 것이다."

적어도 법적으로는 미인가 상태였던 대신학교는 1942년 2월 총독부로부터 폐교 통지를 받고 결국 폐교하고 말았다. 한국인 최초로 노기남 신부가 주교품에 오르는 것을 보고 일제가 교회 간섭을 노골화했기 때문이다.

당시 인사들의 증언에 따르면, 폐교는 천주교회가 조선 총독부의 시책에 순응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내려진 조치였으며, 특히 노기남 신부가 주교로서 바로 그 전 달 즉 1월에 서품을 받게 되자 이에 대한 견제와 압박을 가하기 위해 내려진 것이었다. 이 점은 노기남 주교의 회고록에도 잘 나타나 있다. 그리하여 용산 대신학교의 신학생들은 폐교 조치가 내려진 다음 달인 3월부터 덕원신학교로 옮겨 공부를 계속했다. [노용필, 가톨릭대 인간학연구소 전임연구원, 평화신문, 2003년 6월 29일, 정리 김원철 기자]

◎ 베론 성요셉신학교 전경



- 1931년 베론성요셉신학교의 모습. 1855년 설립된 베론성요셉신학교에서는 병인박해가 일어난 1866년까지 신학교육이 이뤄졌다. 가톨릭신문 자료사진

◎ 예수 성심 신학교의 사제 양성 교육



<사진설명> 용산 예수성심신학교 재학생들. 앞줄 가운데는 1899년부터 1933년까지 무려 40년간 한국인 사제양성에 힘을 쏟은 기낭(Guinaand) 교장신부이고, 가운데줄 오른쪽에서 3번째는 훗날 한국인 최초로 주교가 되는 노기남이다.

◎ 부영골 예수 성심신학교 터



- 1885년 설립됐던 부영골 '예수성심신학교' 터. 사진이승훈기자

[여주 천주교 순교성지]

1801년 신유박해 때 참수형을 집행한 곳이 ‘비각거리 순교터’다. 여주시 여흥로 105번길이라는 주소를 가진 이곳은 예부터 ‘옥거리’로 불렸던 곳으로, 당시 형이 집행된 곳으로 추정되고 있다. 1800년 3월 여주 출신 정종호가 부활 대축일 맞아 복자 최창주(마르첼리노), 이중배(마르티노), 원경도(요한), 조용삼(베드로)와 임희영 등의 신자들을 양섬으로 초대해 기도하고 찬미가를 부르던 중 관헌에게 체포되었다. 이들은 여주 한글시장 인근의 비각거리에서 순교했다. 비각거리 순교터에는 ‘순교치명 기념비’가 세워져 이들을 기린다. 부활절 미사가 있었던 양섬에도 9인의 순교자를 기리는 ‘순교자 기념비’가 세워져있다.

여주성당 주임신부는 여주순교성지 선포식과 함께 본당 1층에 순교자들의 넋을 기리고 순교정신을 본받기 위해 순교자와 관련된 작품과 천주교 성물, 영상 설비를 갖춘 ‘여주순교자 기념홀’을 개관했다.

윤유일(바오로), 최창주(마르첼리노), 이중배(마르티노), 원경도(요한), 윤유오(야고보), 정광수(바르나바), 정순매(바르바라), 이현(안토니오), 최조이(바르바라) 등 9명이 여주출신으로 2014년 8월 16일 광화문에서 시복되었다. 출처 : 여주신문(<http://www.yeojunews.co.kr>)



신유박해 9인의 순교자를 기리는 양섬지구공원 내 ‘순교자 기념비’ © 진재필 여주시민기자



여주 한글시장 인근 비각거리에 세워진 ‘순교치명 기념비’ © 진재필 여주시민기자

◎ 여주 순교자 현양비



● 여주 순교자 현양비

□ 소재지 : 여주시 하동

□ 시 대 : 현대

천주교여주성당의 마당에 2004년 9월 19일 순교자 대축일을 기념하여 건립하였다. 비석의 뒷면에는 1760년 여주 출생으로 1795년 서울 포도청에서 순교한 윤유일(바오로)을 비롯하여 최장주(마르첼리노), 이중배(마르티노), 원경도(요한), 정순매(바르바라), 정광수(바르나바), 조용삼(베드로), 윤유오(야고보), 정중호, 임희영, 이중보(말지노), 윤관수(안드레아), 정진철, 이현(안토니오), 이국승(베드로), 최조이(바르바라), 조(루가) 등의 명단과 약력이 기록되어 있다.